

부자와 나사로

-누가복음 16장 19-31절-

오늘 이야기는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종종 비유라는 이야기 장치를 통해 전달하셨습니다. 오늘 이야기도 그 중 하나입니다. 오늘 본문은 천국과 지옥의 모습이 어떤지, 어떻게 하면 갈 수 있는지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은 본문의 의도를 벗어나는 것입니다. 대신에 본문은 아주 다양한 역전의 이미지를 그려내고 있습니다.

① 이 세상에서 느끼는 역전의 이미지

본문에는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하나는 부자고, 다른 하나는 거지 나사로입니다.

부자는 세상에서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그는 좋은 옷도 걸치고, 날마다 최고의 음식을 준비해서 잔치를 벌이는 사람입니다. 이 세상에서 이보다 더 좋을 수 있을까요?

또 다른 인물은 나사로는 거지입니다. 혼자 제대로 걷지도 못 할 만큼 아팠고, 온 몸엔 종기가 났습니다. 그러나 치료는 꿈을 꿀 수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놀라운 암시가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의 비유 중 유일하게 이 비유가 가진 독특함이 여기 있습니다. 바로 거지가 이름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축복 받은 사람이라 생각되는 부자는 이름이 없지만, 세상에서 철저히 무시되던 거지에게는 나사로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놀랍게도 ‘나사로’라는 이름은 ‘하나님께서 도우신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② 사후 세계에서 확인된 역전

부자와 나사로는 죽었습니다. 호화로운 삶을 살다 죽은 부자는 장례조차 호화로웠습니다. 그러나 부자는 죽어서 음부에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반면에 거지 나사로는 죽고 장례도 제대로 치루지 못하였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 품에 안겨 있습니다. 놀라운 역전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정의가 이 세상에서 온전히 이뤄지지 않는다 생각될 때에도 우리는 내세를 기억하고 마땅히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어야합니다.

그렇다면 부자의 잘못은 무엇일까요? 눅16:1-13과 눅16:14-18의 본문 문맥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③ 죽은 자의 부활과 하나님 말씀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는 부자는 나사로는 다시 살아 돌아가 형제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청합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이마저도 거절합니다. 어쩌면 당연한 요청입니다. 만일 죽은 사람이 살아나서 천국과 지옥을 증언하면 더욱 믿기 쉽지 않을까요? 그러나 본문은 결코 그렇지 않다고 말씀합니다. 오히려 남은 형제들에게는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이 비유를 듣는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은 존재들입니다. 특별한 기적이나 능력이 아니라 오직 복음만으로 충분합니다.